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

2021 평생학습도시 공동학술대회

■ **주제**: 지속가능한 다문화 사회와 평생학습도시
■ **일시**: 2021년 11월 27일(토) 13:00 – 17:10
■ **진행**: 비대면 웨비나 진행(ZOOM)
■ **주최**: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BK21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단)
■ **공동주관**: 강원도 양구군,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
강원대 BK21FOUR 지역재생을 위한 교육협력과 인문케어전문가 양성 교육연구단
■ **후원**: 인하대학교,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 참여 방법]

1부: 개회식 및 세션 1(13:00-16:00)
참여 링크: https://inha-ac-kr.zoom.us/j/96251364009?pwd=V2cyTWxuWm5nWXRKTWlzMEF0V1dkdz09

2부: 세션 2 및 폐회식(16:00-18:00)
참여 링크: https://inha-ac-kr.zoom.us/j/96127271240?pwd=aGdZY2ZBNERKQndJa1BNam9xS2NNZz09

세부일정

	12:50~13:00		등 록
1부	13:00~13:15	인사말	사회 / 장영록(인천대 교수) 조인묵(양구군수, 교육학박사) 김진영(강원대 BK21교육연구단장)
	13:15~14:00	기조 강연	이병준(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 다문화사회에서 평생학습도시는 어떻게 상호문화역량을 촉진할 수 있는가? 김영순(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장) / 평생학습도시 양구군의 다문화 환경과 상호문화정책
	14:00~14:10		휴 식
			SESSION 1논문 발표 좌장 / 손영화(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부회장, 인하대 로스쿨 교수)
	14:10~14:35	발표1	오정미(건국대 강사) / 상호문화교육관점에서 동물 설화에 나타난 문화정체성 연구 :몽골설화를 중심으로
	14:35~15:00	발표2	박옥현(인하대 BK연구원) /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간 탄뎀학습 모델
	15:00~15:25	발표3	배정구(강원대 교육인문협력학과 박사수료) / 건강한 공동체와 평생학습의 관계성 고찰
	15:25~15:50	토론	딜노자(호남대 국제교육원 교수) 탄프엉(베트남 달랏대 한국학과 교수) 유강하(강원대 교육인문협력학과 교수)
			휴 식
2부	15:50~16:00		SESSION 2 논문발표 좌장 / 고장완(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 회장,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16:00~16:25	발표1	석영미(신라대 박사후연구원) / 국내이주자의 교육학적 세대연구: 동향분석과 이론적 분석틀을 중심으로
	16:25~16:50	발표2	박정석(부산대 박사과정) / 북한이탈주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16:50~17:15	발표3	허은정.이지인 (부산대 BK연구원) / 세대 간의 문화갈등, 융합 그리고 학습: 문화예술기관의 사례연구
	17:15~17:40	토론	박은희(유원대 교양융합학부 교수) 강현주(경상국립대 교육학과 교수) 김효선(상명대 교육학과 교수)
	17:40~17:50		폐회 연구윤리특강
	17:50~18:00		총평 및 폐회

인사말

지속가능한 다문화 사회와 평생학습도시 공동학술대회 축사

안녕하십니까?

양구군,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 그리고 인하대학교의 BK21글로컬다문화교육연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속가능한 다문화 사회와 평생학습도시” 공동학술대회에 우리 강원대 BK21-4 지역교육협력교육연구단이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축사의 기회를 갖게 된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이란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배움을 통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활동입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평생교육은 사람들의 효용을 높이는 소비활동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효용을 높여주는 생산활동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활동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일본의 평생학습도시 전략이 추진된 것도, 과거에 주민 참여를 근간으로 하여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을만들기 운동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를 넘어서서 바로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공동체가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중소도시나 농촌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인구감소, 다문화 사회의 진행, 교육과 문화환경의 열악함, 소득 증가율 하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매우 많습니다.

한국의 지역사회 공동체가 가진 문제의 성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분석이나 해결방안 모색은 한 학문분야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학문 분야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공동학술대회는 다문화 교육, 성인교육 그리고 인문치료교육의 입장에서 평생학습을 화두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학문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도출되어 지역사회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넓게는 학문적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학술대회를 위하여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양구군청과 조인문 군수님 그리고 인하대학교의 다문화융합연구소의 김영순 소장님과 학회 프로그램이 작성과 진행을 담당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김진영(강원대학교 BK21FOUR 지역재생을 위한 교육협력과 인문케어 전문가 양성 교육연구단 단장)